ETRI 호남권연구센터 광주 인공지능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광주에 AI융합 연구실 개소
"광주 AI산업 선도토록 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가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에 인공지능융합 연구실을 개소하는 등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인 ETRI은 지난 26일 광주 첨단에 있는 호남권연구센터에서 인공지능 중심 ICT융합기술의 연구개발을 알리는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융합연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호남권연구센터는 호남광역경제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화 연계개발(R&BD)로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준 ETRI 원장은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본원과 호남권 연구센터는 광주형 일자리 이후 최대 숙원인 인공지능 사업을 통해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 응용 기술을 선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연구센터의 중점 연구개발 분야는 ▲에너지 기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및 AI 제어 기술 ▲광무선 통신, 분광 이미징 및 분석, 광 센싱 등 광융합 핵심기술 ▲엣지 컴퓨팅 하드웨어 단말 및 엣지X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광통신 부품제조기술 개발 및 산업체 이전, 패키징기술 제공을 통한 기업 애로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인공지능 조성사업도 중앙부처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추가했다.

이용섭 시장은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공지능융합연구실 개소로 광주가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 일자리가 많은 광주'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ETRI 호남권연구센터는 또 이날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스마트 통합 물관리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패턴분석 기법을 활용한 위기상황 경보체계 개선 ▲시간대별 물 사용량 분석을 통한 누수 탐지 개선 ▲수질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 ▲빅데이터 패턴분석을 통한 서비스 지원 및 운영기준 정립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 기업 경영전략 설명회 광주시는 26일 오후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유치대상기업, TP입주기업 등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계경제와 기업 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생활형 공공일자리
광주시 3565명 선발
4개분야…7월1일부터 근무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시민 공공일자리 2단계 1차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시민 3565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공공일자리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시민 1만 2000명 이상을 1, 2단계로 나눠 채용한다고 발표한 '제5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다.

시민 1만 2000여명 채용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대책의 핵심인 민생과 직결된 고용충격 대응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지난달 12일 채용한 1단계 생활방역분야 공공일자리 971명에 이어 이번에 선발한 3565명은 환경·교통·보육·방역 공공서비스 분야 10개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한 시민을 우선 선발했으며, 사업별로는 환경정비·개선 분야 7개 사업에 2103명,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 772명, 보육지원분야 지역아동센터 등 꿈나무지원단 사업 316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분야 동네방네 생활방역 사업 374명 등이다.

특히 환경정비 개선분야 7개 사업에는 우리동네 청결사업 1204명, 불법광고물 정비 435명, 가로수 유지관리 99명, 도시공원환경정비 151명, 하천 내 친수시설 유지 164명, 하수처리시설 시설물관리 20명, 어린이활동공간 등 환경지킴이 사업 30명이 투입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소방본부 피서지 물놀이·집중호우 대비 수난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5~26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119구조대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 피서지 물놀이 안전사고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익수·조난·실종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119구조대원들은 잠수장비 활용 익수자 구조, 스쿠버다이빙 적응, 수중수색 탐색훈련 등 수중인명구조와 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인명탐색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천택 광주시 구조구급과장은 "수난사고 현장은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훈련을 통한 신속한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 마무리

광주시는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노후시설을 최신 자동화시설로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침사지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나 모래 등을 걸러내고 후속 치리공정의 효율을 높여 주는 중요 시설이다.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는 29년 전 설치된 수동스크린과 침사물 제거장치 기능이 저하되고, 상부가 열려있어 악취가 확산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작업자 안전성 및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스크린과 침사 제거장치를 자동화하고 수로밀폐 시설 등을 설치하는 침사지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김재식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등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주도 자원순환 실천사업 본격 추진

광주형자원순환협의체 구성
쓰레기 감량 등 3개분과 운영
23~25일 회의 실천과제 발굴

광주시는 "시의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형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축하고 시민 주도 자원순환 실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형자원순환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광주시가 민선7기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광주형 자원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기구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녹색소비·에너지 분야 등 3개 시민분과 위원회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시민분과별 첫 회의를 열고 시민실천사업 과제로 종이팩 수거 시스템 구축, 폐우산 수리 재사용 확산,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 등을 발굴하고,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쓰레기감량 분과는 '종이팩 수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시민 주도로 양질의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이팩 수거율 증대를 통한 지역 재활용시장 자생력 확보 계획을 마련한다.

재활용 활성화 분과에선 '폐우산 수리 재활용 확산 사업'을 통해 폐우산을 수거·수리한 뒤 공유 우산으로 재활용하고, 수리할 수 없는 우산은 분해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나선다.

녹색소비·에너지 분과는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 사업'으로 개별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다회용 용기로 구입하는 등 친환경 녹색소비가 시민 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실천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변경 보완하고, 광주형자원순환협의체 실천사업이 시민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 단계별 행정·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재우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향후 시민주도 자원순환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천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은 정책 수립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가능한 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 권역 주거상향 이주지원센터 개소

광주시와 북구, 도시공사는 지난 26일 광주역 행복주택(북구 중흥동)에서 주거상향 이주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국토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역 행복주택 상가동 2층에 북구 권역 주거상향 이주지원센터를 조성했다.

주거상향 이주지원센터에선 노후 고시원과 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이주수요 발굴 ▲주거복지제도 관련 홍보활동 ▲공공임대주택 물색 지원 ▲임시거처 운영 ▲이사 및 정착 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북구와 광주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들에게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와 정착까지 민관협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